

고유가 대책 “석유화학이 걸림돌”

석유전문가회의, 산업에너지의 47.3% 소비 ... 석유화학 축소 불가피

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고유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.

산업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월12일 한국은행, 삼성경제연구소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, 석유산업연합회 등을 초청해 <고유가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대응전략> 주제로 석유산업전문가회의를 열었다.

전문가들은 최근의 유가 상승은 과거 석유파동 때와 달리 시장수급 상황에 따른 것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가격상승에 대비한 석유비축, 해외투자, 소비구조 변화 등 고유가 위험 관리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.

산업연구원의 한기주 박사는 <고유가시대의 산업정책>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에너지 총소비 중 산업부문의 소비비중이 45.2%로 일본 37%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평균 29.9%에 비해 훨씬 높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가 상승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.

그러나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철강, 석유화학, 비금속광물 산업이 75.4%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이 전체 산업에너지 소비의 47.3%를 차지하고 있다.

한기주 박사는 석유화학을 에너지다소비업종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산업용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.

때문에 고유가에 대응한 산업정책은 관련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해 산업간 구조조정보다 산업의 부가 가치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문배 박사는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46달러의 현재추세가 지속되면 2005년 국내 총생산을 0.83%p 낮추는 압력이 발생하고 화학, 고무,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산업이 축소되고 전기, 전자 등 에너지 비집약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.

회의에 참여한 연구기관들은 1980년대 이후 경제의 석유 의존도가 하락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향상됐으며 과거 석유위기에 비해 실질유가가 크게 높지 않아 고유가가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.

실질유가는 1차 석유파동기인 1974년 배럴당 43달러, 2차 석유파동기인 1980년 84달러에 달했으며 2005년 6월 현재 51달러를 나타내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7/13>